‘새만금 잼버리’ 무엇이 문제였나

감사원, 갯벌 선정 배경 · 예산 집행 · 공무원 해외연수 등 집중 감사 돌입

감사원이 21일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부지선정과 예산집행,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에서 다뤄질 주요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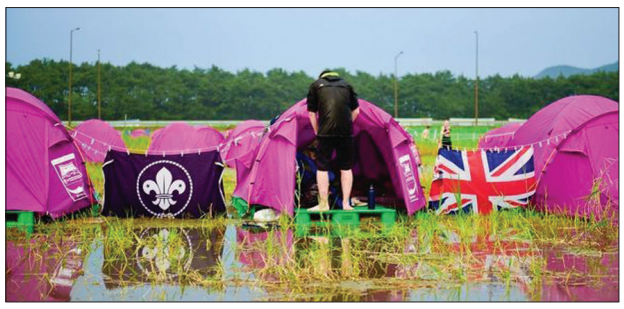
첫째, 왜 잼버리대회를 기 매립지가 아닌 갯벌에 유치했냐는 것이다.

감사팀도 갯벌 선정 배경부터 들여다본다고 한다. 2017년 12월 부지 매립을 결정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립공사를 하는데 3년을 소모했다.

당연히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하는데는 7개월만에 완성해야 했으나 너무 촉박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줄줄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잼버리 장소를 매립지가 아닌 갯벌에 선정해서 준비시간을 대부분 소모해버렸고 이 갯벌에 잼버리 야영지로 선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감사업무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 유치 경쟁시 새만금의 무더위 문제가 거론되어 유치단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영지에 나무를 심었으나 염해로 죽었다는 보도도 있으나 잼버리 야영지 현장에는 죽은 나무의 잔해조차 없었다. 나무 수종과 식목 비용 등의 구체적 내용도 없고 또 작년 2022년 12월에 매립공사를 끝냈는데 언제 나무를 심을 시간이 있었을까. 이는 나무 심었다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8월 당초 프레잼버리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코로나 창궐로 개최를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당시는 매립 공사중이어서 프레잼버리 개최를 열 수 없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 · 온열질환 대비 의견 냈을 뿐 열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벨기에 대표단이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물 웅덩이 위에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치는 사진을 올렸다. 대표단은 “몇가지 문제가 있고, 한국 측에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사진=벨기에 대표단 인스타그램 캡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기반시설 등의 문제점은 프레잼버리로 사전에 파악해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추구했다. 그러나 기 매립지가 아닌, 바닷물이 넘실대는 갯벌을 야영지로 선정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야영지 선정 주체가 누구이고 왜 선정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둘째, 기반시설 적정 설치 여부다.

새만금 잼버리 본부건물로 쓰였던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지난해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다. 잼버리 기간 중 허가받고 임시로 사용했다고 한다. 전국 도급순위 1000위에도 이름이 안보이는 회사라 한다. 더욱이 부지매립공사가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각종 기반공사도 늦어졌다.

더욱이 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도 도급순위 900위 밖의 기업이 선정됐다. 배수와 그늘을 책임지는 업체다. 8월초 잼보리 개시면 적어도 6개월 3개월 전에 끝나도 안전검사 등 하면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준공일이 2023년 12월 17일로 적혀있다. 공사하다가 만 것이다. 메인센터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도 역시 짓다가 만 건물이다.

야영장에 물이 넘친 이유는 기본적으로 밑에 펌프장에 맨홀 펌프장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기공사를 한 업체가 E기업인데 여기도 계약서에 찍힌 준공일이 대회 도중인 8월 5일이다. 펌프장에 전기시설을 6개월전에 설치해도 모자랄 판에 행사도중 준공이 목표였다고 한다. 전기가 안들어오니 당연히 펌프를 돌릴 수 없고 야영장에 물이 찰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화장실 · 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적정하게 설치됐냐는 것이다.

2016년 세계잼버리 유치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는 샤워장 417동(10명당 샤워꼭지 1개), 급수대 278동(15명당 수도꼭지 1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실제 설치된 수량은 각각 281동, 125개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샤워장과 화장실에 긴줄이 이어졌던 것이다.

넷째, 청소 등 인력 적정 배치 여부다.

화장실 청소 관리비용에 4,500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 화장실은 330곳을 청소하는 인력이 70명 뿐이라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 더우기 조직위에 의하면 애초 청소 계획인력은 15명이었으나 “8월 3일자로 부안군에서 용역인원 100명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문제 상황이 해소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어떤 근거로 누가 청소인력 산출을 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청결, 방역, 폭염 대피 예산은 총 16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다. 즉 방역 · 청결에는 돈을 안썼다. 대표단장 회의 1억4,500만원 첨단기술 연구비 5,500만원 홍보예산 7억 4,800만원에 비하여 정작 꼭 필요한 곳은 소외되어 버렸다.

다섯째, 설치업체 등 선정 문제다.

일례로 모기업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계약 8건을 체결했다. 총 용역금액은 23억5,900만원이다. 행사운영과 홍보를 맡았다. 이 업체에 불만이 급증했다고 한다. 자본금 1억에 직원 3명뿐인 기업이다. 유착관계가 있는거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섯째, 여가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의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감사의 대상이다.

출장 목적에 맞는 국가에 갔는지 출장인원, 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지, 대회 성공을 위한 밴치 마킹 등 출장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출장 경비 등의 사용은 적정하였는지 등이 감사의 관점이 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우범기 시장의 주재로 21일 시청에서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 협력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갖고 유관기관과 협조방안 논의

전주시는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통합방위계획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3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의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의 주재로 군의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참여한 민 · 관 · 군 · 경 · 소방 등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올해 을지연습은 21일부터 24일까지 공무원 불시 비상 소집과 행정기관 소산 이동훈련, 전시 직제 편성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대응 실제 훈련은 전주시가 전북지역을 대표해 오는 23일 농촌진흥청에서 11개 기관의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갖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 · 관 · 군 · 경 · 소방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학교연계 전주사람 프로젝트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창의형 교육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주에 대해 애정과 자긍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오는 12월 말까지 신동초등학교와 평화초등학교, 만성중학교, 오송중학교, 우전중학교, 전주중학교, 효정중학교 등 7개 학교 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2학기 학교연계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사람 프로젝트’는 전주의 정신 · 문화 · 관광지 · 역사 · 예술의 글감을 소재로 코칭 학습 습관 형성과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전주에 대해 영상을 기획 · 제작해보며 지역의 자긍심과 자기 주도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참여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모바일 앱 활용 영상 촬영 및 편집 활동 △전주 정보 습득 및 콘텐츠 발굴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 결과물 제작 △결과물 발표회 및 활동 소감 나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을지연습 통해 비상사태 대비

전주시, 24일까지 민 · 관 · 군 · 경 합동 훈련 실시

전시상황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국가자원 총동원 훈련인 ‘2023 을지연습’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전주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주요시설의 파괴 및 대규모 인명피해 등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상태가 발생하는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주시와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제9585부대 2대대 등 민 · 관 · 군 · 경 합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시는 첫날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시청 종합상황실 등에서 직원 140명이 사흘 동안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메시지 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상황 보고와 개인별 전시 직제 편성 교육 및 정부기관 소산 이동훈련 등이 진행되며, 도상연습과 전시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훈련과 국가 중요시설 드론테러대응 훈련 등이 실시된다.

특히, 오는 23일에 농촌진흥청에서는 11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어떠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실전과 같은 민 · 관 · 군 · 경 합동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방공 훈련도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이에 발맞춰 시는 전 직원이 개인별로 전시에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숙지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강도 높은 연습과 훈련에 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어린이 책놀이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9개 시립도서관에서 6세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 등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은 책놀이와 유아미술, 생활공예, 과학놀이, 한국사 등 총 19개 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